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이 승 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인권의식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형, 고문,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딜레마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3학년 학생 각각 6명씩, 그리고 인권운동단체의 성인 3명, 총 39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에 따라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피험자의 반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단계 2의 인권의식 수준(43.6%)으로서 이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대학 3학년의 피험자들까지의 사고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 인권의식 단계 2의 특징은 도구적 쾌락주의와 획일적 평등주의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사고와, 평등이 적용되기 이전에 불평등한 상황을 참작하는 공평성에 대한 사고가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대학 3학년의 인권의식의 수준이 대학 1학년에 비해 낮은 것은 대학의 경험이 인권의식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권문제에 대한 찬·반의 태도는 인권의식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인권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형제도나 고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핵심어: 인권의식 발달 • 인권 딜레마 • 면담 연구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연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인권개념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주장은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 개개인으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인권개념은 이러한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이론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인간존엄성의 사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인간존재는 단순히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사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Peters, 1994).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학이나 사회철학의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져왔으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한 개인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특성, 즉 인권의식으로 규정하는 심리학적인 접근은 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권의식, 혹은 인간존중감과 관련된 심리학 연구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인권을

참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편견에 관한 사회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으며, 두 번째는 연령에 따른 편견이나 인간존중감의 발달에 관한 인지발달론적 연구가 있다.

사회심리학 연구진영에서의 편견에 대한 연구는 양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예를 보면서 편견을 '좌절-공격'의 개념으로 이론화한 연구자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와 '그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지적 범주화로부터 편견이 비롯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Allport(1954)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편견에 관한 수많은 사회심리학 연구물들을 개관한 Duckitt(1988)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편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편견은 첫째, 부적절한 정보에 의한 과잉일반화라는 점에서 합리성의 기준에 위반되며, 둘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데 실패하도록 함으로써 정의의 기준을 침해하며, 셋째, 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함으로써 인본주의의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발달론 진영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에 관한 연구의 뿌리는 Piaget(1932)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도 다른 인지적인 능력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변화,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이해도식은 구조화된 전체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지적 발달에 관한 Piaget의 기본적인 관념은 도덕성 및 사회성 영역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도 적용된다. 즉 낮은 인지단계에서

의 권위에 대한 일방적인 존중과 자기중심성의 특징은 후에 상호존중과 합리성의 사고로 발달한다(Lapsley, 1997). 여기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상호존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적 협동으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Piaget, 1932). Piaget의 인지발달론을 받아들여 도덕성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Kohlberg는 도덕적 판단능력의 가장 발달된 상태인 5, 6단계에 가서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도덕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Kohlberg, 1986).

이러한 인지발달론에 근거한 일련의 발달심리학자들(Getz, 1985; Davidson, 1976; Davidson & Davidson, 1994)은 도덕성이나 여타 정의적인 특성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 또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Davidson(1976)은 인간에게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사람의 태도가 어느 정도 사고의 구조와 가치의 체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집단을 폄하하는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존중에 대한 인지적인 무능력과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존중의 의식은 인지적인 발달로부터 가능하다고 하였다.

Getz(1985)는 인권을 옹호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권에 대한 태도를 도덕성의 발달단계와 관련시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인권에 대한 태도, 도덕추론, 종교적 신념이라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인권을 지지하는 데 있어 일관성의 정도와 도덕추론 수준의 관계를 탐

색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권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인권을 옹호하는가?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연구관심이었다.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와 인권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덕발달단계에서 인습수준(3,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원리화된 도덕추론의 단계(5, 6단계)의 사람들보다 인권에 대한 판단에 있어 비일관적이었다. 즉 3단계 도덕추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족될 때만 인권을 지지하고, 4단계 추론을 하는 사람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인권을 지지하였다. 반면, 원리화된 도덕추론을 사용하는 사람(5, 6단계)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로서 인권을 옹호하였다. 결론적으로 Getz의 연구(1985)는 사람들의 도덕추론 수준에 따라 인권지지의 일관성에 있어 차이가 나며, 원리화된 도덕추론(5, 6단계)을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인권을 일관되게 옹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Davidson과 Davidson(1994)은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에 기초하여 편견이 발달해가는 단계를 기술하였다. 아동은 자신의 인지도식을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의해 조절(accommodation)하는 데 실패하고, 유목화하는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잉일반화(overgeneralizing)하며, 자기중심성(egocentrism)으로 말미암아 타인

의 관점을 채택하지 못한다. 이는 바로 편견의 형성이 아동기의 인지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편견의 양상도 인지발달단계와 더불어 변해간다. Davidson과 Davidson(1994)은 편견이란 인간존중 의식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바로 도덕성의 기초라고 한다면, 아동의 인간존중 의식도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와 함께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해로부터 법체계를 넘어서 인간본연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배려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나간다.

편견에 대한 인지발달론적 접근을 취한 또 다른 학자는 Oser(1990)이다. 그는 오래된 Hofstaetter의 실험연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아동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을 한 성인들 사진 9장을 보여주고, 누가 범죄자일 것 같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6-7세된 아동들은 이러한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더 이상의 질문없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머리모양이나 얼굴의 생김새를 보고 범죄자를 골라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Oser(1990)는 편견이 부정적인 사회화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범주를 가역할 수 없는 인지적인 능력의 결핍이라고 주장한다. 즉 어린 아동의 편견은 대상의 외양과 신체적 혹은 표면적 측면만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그들은 의도와 표현을 결합시킬 수 없으며 사람의 성격과 같은 내적인 특징을 겉모습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편견을 감소시키고 관용(tolerance)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인지적인 발달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편견이나 인간에 대한 존중의식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른 인지적인 능력의 확대와 더불어 발달하게 된다. 문용린(1998)은 현재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의식의 발달경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의식발달의 경향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인권의식은 어떠한 발달경향을 나타내는가?
 - (1-1) 인권의식의 발달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1-2) 인권의식의 발달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2) 인권의식의 발달단계별 사고 및 행동 선택의 특징은 어떠한가?
 - (2-1) 인권의식의 발달단계별 사고특징은 어떠한가?
 - (2-2) 인권의식의 발달수준과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태도는 관련이 있는가?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2

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 학생 각각 6명씩, 그리고 인권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인 3인(평균연령, 38세), 총 39명을 면담하였다. 각 학년에서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씩을 면담하였으며, 성인 집단에서는 남성 2인과 여성 1인을 면담하였다. 인권운동단체의 성인을 면접한 이유는 인권의식에서 가장 발달된 단계의 사고특징을 보기 위해서이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제작하고,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수 1인 및 박사과정 학생 3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 보완한 『인권의식 측정 면담지』이다. 『인권의식 측정 면담지』는 3개의 딜레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딜레마 이야기는 '사형제도', '고문', '장애인'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형 딜레마의 주질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전과범이 유능한 물리학 박사를 죽이고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1심에 사형을 구형받았다. 당신이 판사라면 최종판결에서 사형을 내리겠는가, 내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부질문은 '박사와 강도의 입장이 바뀌어 박사가 강도를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혹은 살인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등이다. 부질문은 피면담자의 인권의식 단계를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면담자의 반응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피면담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문 딜레마는의 주질문은 '테러집단의

표 1. 인권 의식의 6단계 특징

단계	단계의 특징	사 고 의 특 징
1단계	처벌, 복종지향적 인권 의식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회피할 수 있을 때 만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벌(권위체로서의 법)은 사악한 행위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2단계	도구적 쾌락주의에 근거한 인권 의식	공평함이란 개인의 이해관계를 균형맞추는 것이며, 정의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자신이 대접받은 대로 똑같이 되돌려 주는 것이 다.
3단계	공동체 조화와 감정이입에 근거한 인권 의식	인간에 대한 존중은 그의 동기와 인성에 기초한다. 2단계보다는 객관 적인 인권의 관념을 가지는 것 같지만, 아직은 사적은 감정의 용어로 표현된다.
4단계	사회체제 유지에 근거한 인권 의식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앞에 평등하다. 인권은 사회체제를 유지하 는 한에서만 존중된다. 도덕보다는 법이 우선한다.
5단계	사회복지에 근거한 인권 의식	인간생존과 자유라는 궁극적인 가치는 개인들이 동등한 권리, 가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6단계	보편화 가능하고 가역적인 인권 의식	한 사회를 넘어서 모든 사회에 모든 시대에 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 이는 신성불가침한 인간존엄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능하다.

지도자로부터 폭탄테러의 진실을 알기 위
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고문을 허용
해달라는 경찰의 청을 판사는 들어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문제이다. 장애인 처우 딜레마는
장애인들을 기회의 평등, 더 나아가 조건
의 평등까지 고려하여 대우할 수 있는가
를 다루는 문제이다. 이 딜레마의 주질문
은 '고등학교에서 반대향 축구대회를 하
는데 이긴다면 상품으로 컴퓨터 두 대를
탈 수 있다. 당신이 반장을 하고 있는 반
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자기
가 선수로 뛰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분석절차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면담을 통해 얻

은 질적 자료의 분석과 집단간 인권 의식
수준의 차이 검증에 위한 통계적 분석으
로 나뉜다. 면담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각 딜레마에
대한 면담은 녹음, 녹취되었으며, 이 녹취
록의 내용은 Davidson(1974, 1994)의 인
간존중의식 단계 채점기준과 Kohlberg
(1981, 1986)의 도덕추론 및 사형제도에
대한 추론 단계 채점 기준에 근거하여 채
점되었다. 각 단계의 개괄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단계 평정을 통해 '인권 의식 단계점수
(Stage Score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이하 SSHR)'와 '인권 의
식 점수(Human Rights Consciousness
Score: 이하 HRCS)'가 산출되었다.
SSHR은 세가지 주제(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별 단계 중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

난 단계를 점수화한 것이다. 즉 어떤 피험자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 2, 1, 2 단계로 반응을 했다면, 2단계 반응의 빈도수가 가장 높으므로 이 피험자의 인권의식 단계점수는 2단계가 된다. HRCS는 세가지 주제별 단계를 모두 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피험자가 세가지 주제에 대해 2, 1, 2단계로 반응했다면, 이 피험자의 인권의식 점수는 5점(2+1+2)이 된다.

면담 내용에 대한 단계 평정은 사전에 제작된 평정기준¹⁾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와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 1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정자간 일치도²⁾는 91% (평정자당 평정 빈도=156, 일치빈도=142)였다.

면담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인권의식 단계점수(SSHR)는 연령별, 성별 의권의식의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의식 점수³⁾(HRCS)에 대해서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채점 기준은 관점채택 능력의 발달지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추론내용 및 공정성에 대한 조작능력 등 각 단계 추론의 세부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개괄적인 특징은 표 1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 2) 평정자간 일치도는 Irwin과 Bushnell의 공식(이은혜, 1985)으로 계산되었다. 이 공식에 의하면 평정자 A, B간의 일치도=일치한 평정빈도×평정자수/평정자 A의 평정빈도+평정자 B의 평정빈도이다.
- 3) HRCS는 주제별 단계점수를 합산하여 얻은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변수는 동간성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모수 통계기법인 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자료분석을 통해 얻는 결과와 해석을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 분석을 통해서 얻은 인권의식의 발달경향과 인권의식 수준과 행동특징간의 관계를 제시하고, 다음으로 면담기록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인권의식 발달단계의 사고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인권의식 발달 경향

① 연령별 인권의식 수준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SSHR을 사용하여 연령별 인권의식 수준의 차이를 χ^2 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연령별로 인권의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인다. 즉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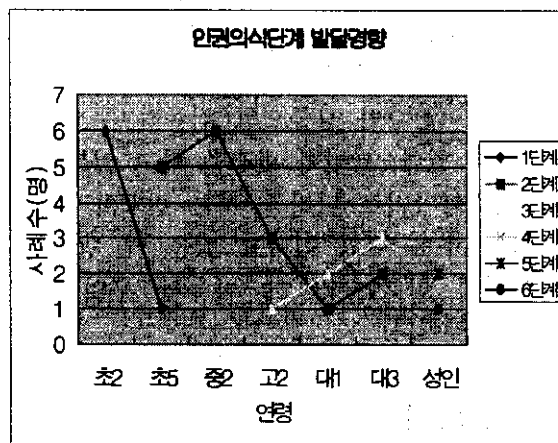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인권의식 수준(SSHR)

표 2. 연령별 인권의식 수준(SSHR)

단계	연 령							전체
	초2	초5	중2	고2	대1	대3	성인	
1	6	1						7 (17.9)
2		5	6	3	1	2		17 (43.6)
3				1	2	3		6 (15.4)
4				2	2	1		5 (12.8)
5					1		2	3 (7.7)
6							1	1 (2.6)
	6 (15.4)	6 (15.4)	6 (15.4)	6 (15.4)	6 (15.4)	6 (15.4)	3 (7.7)	39 (100.0)

($\chi^2 = 83.40$, $df=30$, $p < .001$)

표 3.1. 연령별 HRCS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연 령(N)	초2(6)	초5(6)	중2(6)	고2(6)	대1(6)	대3(6)	성인(3)	전체(39)
평 균	3.67	5.50	6.00	8.33	10.50	8.67	16.00	7.79
표준 편차	(.52)	(1.38)	(.00)	(2.58)	(3.02)	(2.88)	(1.73)	3.78

연령별 인권의식 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HRCS를 이용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3.1은 연령별 HRCS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 3.2는 변량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3.2. 연령에 따른 인권의식 수준(HRCS)의 일원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ss)	자유도 (df)	평균자승화 (ms)	F
연 령	405.36	6	67.56	15.78***
오 차	137.00	32	4.28	
전 체	542.36	38		

***P<.001

이 표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인권의식 수준(HRCS)은 유의미한 차이($p < .001$)가 나타난다. 즉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집단간의 평균의 차를 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증을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2학년 집단은 초5와 중2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고2 이상의 연령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집단은 대학 1학년 집단과 성인집단과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간의 차는 유의미하지 않

표 4. 연령별 인권의식 수준(HRCS)차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집단 (평균연령)	초2	초5	중2	고2	대1	대3
초2 (9)						
초5 (12)						
중2 (15)						
고2 (18)	*					
대1 (20)	*	*				
대3 (22)	*					
성인(38)	*	*	*	*		*

았으며, 이 두 집단은 성인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집단은 대학교 1학년 집단의 인권의식 수준은 대학교 1학년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목할만 한 것은 대학교 3학년 집단의 인권의식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집단과 비교했을 때만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이는 대학교 3학년 집단의 인권의식 수준(평균, 8.67)이 대학 1학년생(평균, 10.50)보다 낮으며, 고등학교 2학년생의 인권의식수준(평균, 8.30)과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의 개별 인권의식 수준을 더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대학 3학년 6명 중 2명이 2단계의 인권의식 수준(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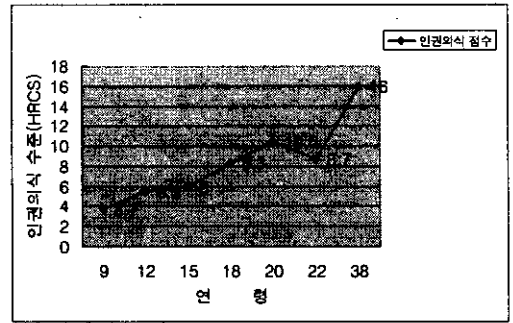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에 따른 인권의식 수준

6.00)을 보임으로써 전체 대학 3학년 학생의 평균 인권의식 수준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② 성별 인권의식 수준

인권의식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 수준의 차이를 χ^2 검증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표에 의하면, 전체집단의 남녀별 인권의식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geq .05$). 즉 전체집단의 인권의식의 수준은 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5. 성별 인권의식 수준(HRSS)

숫자는 빈도
()는 %

성 별	인권의식 수준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남	3	7	2	5	1	1	19 (48.7)
여	4	10	4	0	2	0	20 (51.3)
전 체	7 (17.9)	17 (43.6)	6 (15.4)	5 (2.8)	3 (7.7)	1 (2.6)	39 (100.0)

($\chi^2 = 7.65$, $df=5$, $p \geq .05$)

표 6. 남녀별 인권의식 수준(HRCS)의 변량분석 및 연령과의 상호작용 효과

변량원	자승화(ss)	자유도(df)	평균자승화(ms)	F
주효과	415.89	7	59.41	12.61***
연령	389.95	6	64.99	13.79***
성별	10.53	1	10.53	2.23 (N.S.)
연령×성별 상호작용효과	8.64	6	1.44	.31 (N.S.)
설명량	424.53	13	32.66	6.93***
오차	117.83	25	4.71	
전체	542.36	38		

*** P < .001

인권의식 점수(HRCS)를 이용하여 연령집단에 따라 남녀별 인권의식의 차이에 대해 변량분석 및 연령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여 본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표에 의하면 인권의식 수준(HRCS)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체 집단의 인권의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연령에 의한 것이지 성별의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남녀별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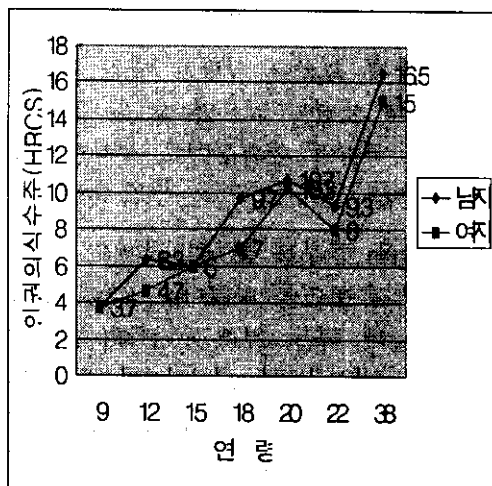


그림 4.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 수준(HRCS)

2) 인권의식의 발달단계별 행동 및 사고 특징

① 인권의식수준과 인권문제에 대한 행동특징

인권의식 발달단계별 행동선택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개 주제별⁴⁾ 추론 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 대해 χ^2 검증을 실시하여 표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표에 따르면 인권의식 수준별로 인권문제에 관련된 찬·반의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권의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형제도나 고문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인권의식의 1,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형이나 고문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5단계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사형이나 고문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② 인권의식 발달단계의 사고 특징

인권의식의 발달단계별 사고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밝히기 위하여 주제별 응답자

4) 장애인 처우 주제는 찬성과 반대의 태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태도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7. 인권의식 수준별 태도

숫자는 빈도

주제	태도	추론 수준						χ^2
		1	2	3	4	5	6	
사형제도	찬성 (N=28)	7	15	1	5	0	0	30.26**
	반대 (N=11)	0	1	5	0	4	1	
고문	찬성 (N=31)	9	16	4	2	0	0	26.73**
	반대 (N=8)	0	0	2	1	4	1	

** $p < .001$

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 인권의식의 특징은 주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서 나타나고,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초2: 사형을 시키겠어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강도 짓 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으니까요. <사형제도 딜레마>

초2: 고문을 하라고 할거예요. 그 두목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고통을 받아도 되잖아요. <고문 딜레마>

초2: 영태를 안 시켜줘요. (왜?)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축구를 해요?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지잖아요. (영태가 슬퍼해도?)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다리 뺐으니까 못 뛰다고 할 거예요 <장애인 처우 딜레마>

1단계 사고의 특징은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인을 저지른 자의 동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잘못된 행위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자동적으로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라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장애인 처우에서 공평한 처우에 대한 여지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자 한다.

인권의식의 2단계 사고의 특징은 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중2: 저 같으면 그냥 사형을 내리겠어요. (왜?) 이유야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사형제도가 있어야 많은 죄와 적은 죄를 구별할 수 있어요. 돈을 훔친 것보다 사람을 죽인 게 더 심한데 사형이 없으면 둘 다 징역이니까 구별이 안되잖아요. <사형제도 딜레마>

중2: 고문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내 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내 달았을 때도 안될 때가 문젠데, 그러면 우선 고문을 해보는 거죠. 그 이유요? 저 같아도 고문 안 하면 말안 해요. <고문 딜레마>

초5: 제비뽑기를 해요. 영태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평등하잖

아요.(그럼 반의 다른 아이들이 영태를 빼자고 하면?) 그럼 뭘 것 같어요. 그러면 영태가 뛰어도 개한테 패스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1명이 축구를 하는 건데 10명이 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장애인 처우 딜레마>

2단계의 사람은 타인의 시각이나 흥미에 대한 고려가 생기는 하지만, 타인의 존엄성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줌으로써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그것이 어떤 인간존엄성의 말살이어도 상관없이 중요하다. 고문이나 사형제도의 유용성은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기계적인 평등이 공평한 처우라고 믿는다. 이들이 보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잖아요"라는 반응은 평등이 적용되기 이전에 불평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재화나 기회의 똑같은 분배를 의미하는 기계적인 평등이다.

인권의식 3단계의 사고특징은 주로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1학년과 3학년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1: 저는 김 박사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만약 제가 그 판사가 내렸던 것처럼 사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사회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겪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다른 사람이 편

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딜레마>

고2: 고문 방법이 아니고 설득을 할 것 같아요. 희생당할 사람들 중에 당신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렇게요. 고문은 막 때리고 물 속에 집어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하거나 아니면 이해해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문 딜레마>

고2: 그 애를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겠어요. 컴퓨터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소속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구요. 또 시험에서 지더라도 반 애들의 불만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태를 빼고 제비뽑기를 했다면 불만이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OO는 좋은 반장이었어' 그렇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 처우 딜레마>

인권의식 3단계의 사고특징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이나 동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의식은 보편적인 원리보다는 정서적인 감정이입에 호소한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싫은 만큼 타인도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은 것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 또한 3단계 인권의식의 한계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를 침해하는 사람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의식 4단계는 주로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1: 저는 사형선고를 할 것 같거든요. 살인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회보다 더 정화된 사회가 되면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회에 있어서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더 많은 범죄억제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형제도 딜레마>

대1: 고문을 허용할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위해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느라 이 여자를 고문하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고문을 할 거 같아요. <고문 딜레마>

대3: 어떤 모든 사회상황에 있어서 어떤 한쪽이 대우받으면 반대쪽이 차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양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불행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사회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장애인 처우 딜레마>

4단계 사고의 특징은 한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권에 대한 관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서는 한 사람의 인권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도덕적인 고려보다는 사회체제의 유지와 법에 대한 고려가 앞선다. 공평함(equity), 즉 불리한 상황을 참작하고, 재화나 기회의 분배에 앞서 존재하는 불평등을 고려함으로써 평등의 적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고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전 단계와는 구분되지만, 그 역시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인권의식의 5단계 사고특징은 주로 대학생과 성인집단, 즉 인권운동가들에게서 나타났는데, 그 반응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38세): 사형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이제까지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제도로써 앗아가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징역을 내려야죠. 어쨌든 무기징역은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을 앗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형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귀중한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사형제도 딜레마>

대1: 고문은 안돼요.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억압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신이 이끄는 방향으로 오도록 하는 것. 하면은 안 돼요. 내가 판사라면 하라고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정당화는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불법이 정의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고문 딜레마>

대1: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장애인은 보통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그것을 역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애인 처우 딜레마>

5단계에는 확실히 한 사회체제를 앞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가 나타난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나타나지만, 끊임없이 현실적인 사회의 요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즉 더 큰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한 인간의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5단계 사고와 6단계의 사고 특징을 좀 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6단계의 도덕적 관점은 모든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을 보증해준다. 5단계가 자유로운 동의와 사회계약에 의한 신뢰, 존엄, 공동체를 보장하려 한다면, 6단계는 사회적 계약이 신뢰, 존엄,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존재한다. 즉 신뢰와 공동체는 동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행조건인 인간 개성의 신성불가침한 측면이며, 인간 개성의 신성불가침의 측면은 어떤 사회계약이든 그것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Lapsley, 1997). 물론 콜버그(1979)도 사형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추론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6단계의 사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인권운동

가인 성인 피험자가 보여준 반응은 보편 윤리로서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6단계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 인권의식의 6단계 사고특징은 다음과 같다.

성인(38세): 사형제도의 형벌은 응보아냐니까? 동태복수적인 거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인간에 있었던 동태복수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는 노예시대의 관습법이에요. 역사가 진보하고 이성이 발전한 상태에서 노예시대의 관습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태복수적인 효과와 소원도우효과를 위해 꼭 사형제도가 있어야 하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한번뿐이었는데, 우주하고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불가역적인 거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 사회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위해서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제도 딜레마>

성인(38세): 안 하죠. 물론 사회전체를 지키기 위해 한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그건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인권을 짓밟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이룩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그게 건강한 걸까요? 한 사람의 인권, 가치, 존엄성에 대한 배려에 기반한 전체만이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고문 딜레

마>

성인(38세): 자유다, 평등이다 그렇지만 그 평등이 형식상 평등이 아니고 실질적 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조건의 평등까지 나아가야지요. 그것이 실질적인 평등을 만드는 것이지요. 미국의 차별수정안이 바로 그러한 정신을 실현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되었죠. <장애인 처우 딜레마>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성인집단에 이르기까지 39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자료를 가지고 인권의식의 발달경향을 분석하여 인권의식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인권의식의 수준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인권의식의 발달 수준에서 독특하게 발견한 특징들을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의식 수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피험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의 추론 수준은 전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도구적인 쾌락주의의 1, 2단계의 인권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이전 연령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면담자료의 질적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사회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2단계의 확일적 평등주의와 도구적 쾌락주의의 인권의식이 피험자의 반을 차지하였다. 대학 1학년이 되면서는 2단계의 사고는 사라지고, 사회의 관점에 앞선 인권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학 1학년까지 연령에 따라 발달하던 인권의식 수준이 대학 3학년들에게서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를 일종의 퇴행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Kohlberg(1984)도 보고한 바 있는데, 그는 대학 2학년 정도의 사람은 그에게 사용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며 대신에 이전에 이미 버렸던 인습이전 단계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 시기에 4단계와 5단계 사고의 혼합을 보였던 피험자들도 대학 2학년의 시기쯤에 이르면 자신들이 인습적인 도덕성과 5단계의 도덕성을 버리고 대신 철학적, 사회정치적인 용어들로 채색된 2단계적인 쾌락주의적 상대주의를 대체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Kohlberg, 1984). 많은 연구자들(Rest 등, 1986, McNeel, 1994, Snarey, 1995)이 연령

과 형식적인 교육이 도덕 판단력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임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연구(McNeel, 1994)는 대학에서의 경험이 도덕성 발달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직업교육이나 교조적인 도그마를 강조하는 대학교육은 오히려 도덕 판단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결과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학 3학년 피험자들이 2단계와 3단계의 인권의식 수준을 보인 것은 아마도 우리 나라 대학교육이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인지적인 발달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둘째로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본 연구의 표본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한 두 피험자의 극단적인 사례는 전체 집단의 평균점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3학년 집단을 피험자별로 분석해 본 결과, 2명의 피험자(남녀 각각 1명씩)가 2단계의 인권의식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를 충분히 하여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결과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2단계의 인권의식 수준을 가장 많이 보였다(전체 피험자 중 43.6%)는 것이다. 2단계의 사고는 앞서 지적한 도구적 쾌락주의의 사고 특징 이외에도 획일적 평등의 사고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처우 주제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장애인 처우 딜레마에서 2단계의 사고는 전체 피험자 중 51.3%에게서 발견되었다. Piaget (1932)가 보고한 연구결과 중 13-14세의 피험자들 중 95%가 획일적 평등의 적용을 넘어서 불평등한 상황의 조건까지

감안할 수 있는 공평(equity)의 사고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우리 나라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누구도 공평에 대한 사고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의 수준은 Piaget의 연구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 수준의 분석결과는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사형이나 고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의식 수준 5단계 이상의 피험자들의 100%가 사형과 고문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도덕판단 수준과 행동선택에 관한 Kohlberg(1981)의 연구결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도덕판단 수준이 높아질수록, 특히 5단계 이상의 사람들일수록 도덕적인 판단과 도덕적 행동선택이 일치하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5단계 이상의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 법이나 사회질서 유지보다 생명, 자유, 정치적인 권리 등의 인권에 대한 고려를 판단의 중심에 놓는다. 사형이나 고문이 인권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본다면 인권의식 수준의 발달은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적 경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였지만, 발달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장애인 처우 딜레마에서의 반응),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보다 낮은 반응의 단계를 보였다. 이는 인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를 문제삼고 바로잡으려는 교육적인 노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현실이 우리 나라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인권의식의 발달이 인권옹호적 행동을 보장한다는 세 번째 연구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인권의식을 발달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은 결국 인권옹호적인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문용린 (1998). 학교에서의 인권, 교권, 학습권의 위상.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제 3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 토론 자료집.
- Allport, W.G. (1957). *The Nature of Prejudice*. N.Y.: Addison-Wesley.
- Davidson, F.H. (1974).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Ethnic Judgment in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1976). Ability to Respect Persons Compared to Ethnic Prejudice in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Vol.34, No. 6, 1256-1267.
- Davidson, F.H. & M.M. Davidson. (1994). *Changing Childhood Prejudice*. Westport: Bergin & Garvey.
- Dollard, J., Doob, L. W., Miller, N.E., Mowrer, O.H. and Sears, R.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Duckitt, J.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Y: Praeger.
- Getz, I. (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Jones, P. (1994). *Rights*. London: The MacMillan Press.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1. San Francisco: Harper & Row.
-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2. San Francisco: Harper & Row.
- (1986). A current statement on some theoretical issues. In S. Modgil and C. Modgil (Eds.), *Lawrence Kohlberg: Consensus and Controversy*. Philadelphia: Falmer Press.
- Lapsley, K. D. (1996). *Moral psychology*. Oxford: Westview Press.
- McNeel, P.S. (1994). College Teaching and Student Moral Development. In J. Rest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Oser, F. (1990). Prejudice and Moral Education, *Scientific Contributions on Education*. Nr. 84.
- Piaget, J. (1932/1997).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Y.: Simon & Schuster Inc.
- Rest, J., & Deemer D. (1986). Life Experiences and Developmental Pathways. In J. Rest (Eds.),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Y.: Praeger.
- Snarey, J. (1995) In a Communitarian Voice: The Sociological Expansion of Kohlbergia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W.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and Bacon.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end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Centered on Capital Punishment, Torture, and the Handicapped.

Seungmi Lee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end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HRC)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36 — 6 nine-year-old, 6 thirteen-year-old, 6 fifteen-year-old, 6 eighteen-year-old, 6 twenty-year-old and 6 twenty two-year-old —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3 adults, human rights activists. 39 subjects were asked to reason about 3 human rights dilemmas of capital punishment, torture and the handicapp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HRC is developed according to age; that HRC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 and that the stage 2 is overwhelming among the subjects(43.6%). The stage 2 is characterized by instrumental hedonism('eye for eye, teeth for teeth') and by lack of the concept of equity. The attitudes towards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re related with the levels of HRC; the higher level of HRC is, the more they tend to vote against capital punishment and torture.

Key Words: developmen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 human rights dilemma • interview method